

EXPERT  
KNOW-HOWMBC 상암동 신사옥을 가다 ①  
시설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박찬열 MBC 전) 신사옥방송기술부장, 현) 보도기술부장

MBC

## 신사옥 시설 컨셉

MBC 상암 신사옥은 10,367평의 대지에 연면적 4만 5천여 평 규모로 방송 콘텐츠 제작시설이 들어선 방송센터(9층), 사무공간과 라디오 스튜디오가 위치한 경영센터(14층), 공개홀과 자회사가 입주한 미디어센터(14층), DMC 활성화를 이끌 임대상가로 이루어진 복합방송시설이다. 또한, 저층부에 시청자 투어 동선을 배치하고 투시형 라디오 스튜디오, MBC 갤러리 등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이벤트와 현장 교육이 이루어지는 에듀테인먼트의 장을 제공한다. 미래방송환경을 예측한 최적의 방송시스템으로 최고 수준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의 중심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MBC는 상암 신사옥에서 힘찬 날개짓을 시작하였다.

경영센터  
라디오 방송시설, 사무실미디어센터  
뉴미디어 뉴스국, iMBC,  
MBC C&I 편집실 등다목적 공개홀  
공개오락(음악중심 등)제작MBC광장  
일반인에도 개방된  
테마광장임대상가  
DMC 활성화 및 수익창출방송센터  
TV주조정실, 뉴스/제작 스튜디오, 편집시설, 음향제작시설,  
보도국이 포함된 콘텐츠 제작

그림 1. 신사옥 건물 배치



그림 2. 신사옥 건물 전경

|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
| 도로명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267     | 2006년 6월       |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 체결 |
| 사업기간   | 2010.03~2013.11(45개월) | 2007년 3월       | DMC 부지매입 계약     |
| 대지면적   | 34,270.1m2(10,367평)   | 2008년 12월      | 신사옥 컨셉 설계안 선정   |
| 연면적    | 149,935.81m2(45,356평) | 2009년 7월       | 건축심의 통과         |
| 규모     | 지하3층 ~ 지상14층          | 2010년 3월 25일   | 착공신고            |
| 건축높이   | 71.4m                 | 2013년 11월      | 건물 준공           |
| 주차대수   | 1,137대                | 2014년 8월 4일    | 방송송출 개시         |
| 컨셉설계사  | 미국 Gensler            | 2014년 9월 1일    | 개막 기념식          |
| 설계사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표 2. 신사옥 건설 경과 |                 |
| 공사 감리  | (주)전인씨엠               |                |                 |
| 공사 시공사 | (주)현대산업개발             |                |                 |

표 1. 신사옥 건설 개요

| 구분       | 실명(수량)                                                                     |
|----------|----------------------------------------------------------------------------|
| TV주조정실   | TV주조정실(1), DMB주조정실(1), 뉴미디어송출실(1), 회선조정실(1)                                |
| 뉴스제작     | 뉴스스튜디오(2), 오픈형 가든스튜디오(1), 보도NLE편집실(31), 스포츠제작실(1)                          |
| TV스튜디오   | TV스튜디오(4), 공개홀(1), 가상스튜디오(1)                                               |
| 라디오제작    | 라디오주조정실(1), 오픈형 가든스튜디오(1), 라디오공개홀(1), 스튜디오(10)                             |
| 포스트 프로덕션 | 종합편집실(6), 특수영상제작실(6), 색채현실(4), NLE편집실(104), 사운드믹스(8), 제작CG실(1), NPS CG실(4) |

표 3. 상암 신사옥 주요 방송시설 현황

MBC 상암 신사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기본 컨셉을 가지고 건설하였다.

### ① 최고의 방송인프라를 구비한 통합 사옥

여의도 방송센터와 일산제작센터의 분산기능이 집적된 통합사옥으로 전 직원의 일체감을 충족하고, 미래의 방송 환경을 예측한 최적의 방송제작 인프라와 환경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방송제작 관련실의 차음, 흡음, 방진, 방음, 진향 등의 음향제작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본 Nittobo 사와 건축음향 설계 및 감리를 일부 시행하였다. 방송제작에 편리하도록 출연자 대기실, 분장실 등을 대폭 확충하여 방송제작실 인근에 배치하였다.

### ② 시청자와 함께 하는 개방형 사옥

사옥 내 아트리움 로비와 야외 광장을 개방하여 시청자와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청자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투시형 라디오 스튜디오와 투어 공간을 배치하여 시청자 참여를 확대하고, 야외건물 벽면의 미디어보드를 프로그램 홍보, 야외 시사회, 스포츠 거리응원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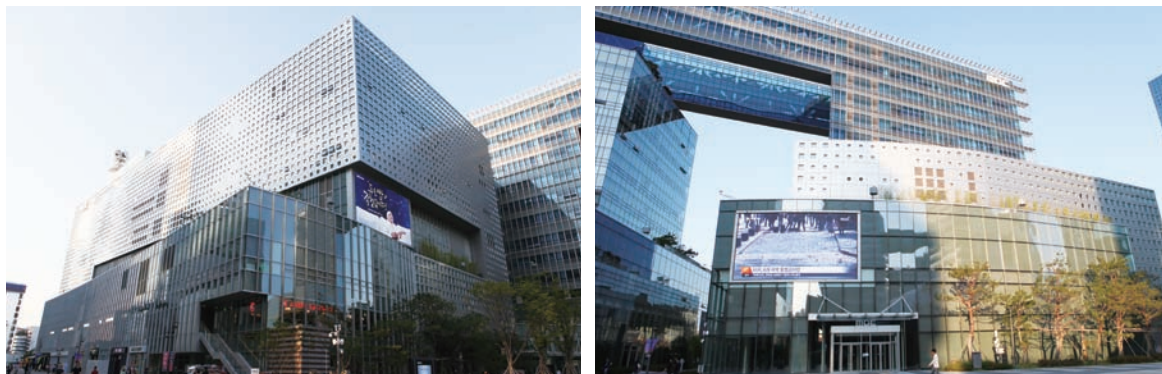


그림 3. 시청자에게 개방된 야외광장과 미디어보드



그림 4. 시청자에게 개방된 야외광장과 상가

그림 5. 시청자에게 개방된 신사옥 로비



그림 6. MBC의 변화 모습 전시

그림 7. 시청자 체험공간(의상 체험)



그림 8. 시청자 체험공간(뉴스앵커 체험)



그림 9. 시청자 체험공간(KPOP 댄스 체험)

### ③ 미래지향적인 오피스 환경

신사옥의 사무 공간은 '창조적인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책상 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외부 접견실, 소규모 미팅룸, 취재 및 인터뷰 공간, 휴게실, 공용 허브존 등을 다양하게 설치하였다. 복도와 칸막이, 벽이 없는 '오픈 오피스'를 구성함으로써 확실적이고 단절됐던 기존 사무실 구조를 개선했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회의가 가능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을 신설했다. 프로그램 제작발표회, 강연회 및 전시회 장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M라운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방송을 보면서 기획회의를 할 수 있는 'B라운지',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 공간인 'C라운지' 등 신사옥에 조성될 3가지 형태의 아이디어 라운지는 사원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0. M라운지 전경



그림 11. 행사 진행 중인 M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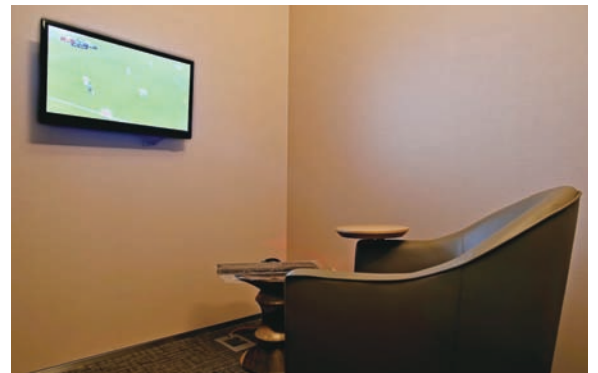


그림 12. 1인용 모니터실이 구비된 B라운지



그림 13. 국내외 방송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B라운지



그림 14. 촬영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B라운지내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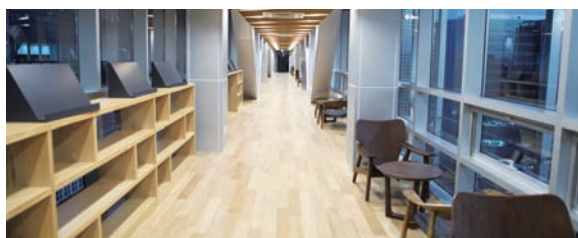


그림 15. 휴식 공간인 C라운지



그림 16. 라디오 스튜디오 주변 시설

#### ④ 신나는 일터 조성

직원들의 휴식을 배려하여 각 건물마다 옥상정원을 마련하였으며, 150평 규모의 피트니스 센터와 어린이집을 마련하여 복지시설을 확충하였다. 자전거 보관대를 추가 증설하고 구내식당도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미도록 하였다. 방송사 사옥 내부에 20여 곳 이상의 임대 상가를 두어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음식, 음료 등도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7. 구내 식당 인근의 휴게 라운지



그림 18. 휴식공간인 옥상정원

#### 최고의 방송 인프라 구비

신사옥 방송시설은 다음과 같은 주요 컨셉으로 구축하였다.

##### ① Tapeless 방송시스템 구축 목표

기존의 VCR을 이용해서 방송 내용을 편집했던 것이 NLE(Non-Linear Editing) 시스템으로 거의 전환되어 촬영단계에서부터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으며, 장소 간 이동 또한 방송망 네트워크로 연결되거나 이동성 디스크를 이용해서 이동함으로써 굳이 테이프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한다. NPS(Network Production System)의 단계적 도입으로 인해 Tapeless 방송시스템의 전면 도입이 다소 미루어지긴 했으나, Tapeless 방송제작 및 송출시스템 구축으로 편의성이 향상되고, 화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광고를 직접 송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광고 판매시간이 연장되어 회사의 수익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② 최고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최적의 방송시설 구현

신사옥에서는 취재, 인제스트, 편집, 검색, 송출 등 방송제작 모든 작업들이 테이프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Tapeless 제작환경을 목표로 구축하였다. 이를 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능과 공간들은 유기적으로 배치하였다. 최적의 음향제작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음도, 흡음, 차음, 방진 등의 건축음향 규정을 강화하고, 건축음향설계와 시공을 전문업체가 담당함으로써 최고의 기능성을 가진 방송 제작시설이 되었다. HD 뉴스제작에 필요한 최적의 스튜디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도용 뉴스 스튜디오의 층고를 여의도보다 높였으며, 시청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가상 스튜디오와 뉴스용 오픈스튜디오 기능을 보강하여 다양한 뉴스포맷 제작에 대비하였다. 상암 신사옥은 기자, PD 등의 사용자가 만족하는 최적의 방송시스템을 경제적으로 구축한다는 컨셉으로 시행하였으며, 여의도와 일산사옥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인력운용과 시스템 구축 면에서 효율적인 방송시설이 되도록 하였다. 방송시설 투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의도와 일산 방송장비를 최대한 재활용하고, 방송장비 품목별 총괄구매도 실시하였다.



그림 19. 건축음향을 고려한 제작부조정실 내 오디오석



그림 20. 기능성과 건축음향을 고려한 라디오 제작부조정실

### ③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방송제작 출연자들을 위한 분장실, 대기실 등을 확충하였으며, 방송조정실의 모니터 셸프와 콘솔데스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을 접목하여 구축하였다. 콘텐츠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NLE 편집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방송성을 향상시키고, 소형에어콘을 개별실에 별도로 설치하고, 삼림욕 효과를 위해 편백나무 수액을 분사하는 피톤치드 장비도 설치하여 장시간 편집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이고 근무자들의 건강도 배려하였다.



그림 21. 모니터 거치용 LCD암을 대폭 활용한 제작부조정실



그림 22. 라디오 스튜디오 내 콘솔과 모니터



그림 23. NLE 편집실의 에어컨과 피톤치드 장비

#### ④ 미래지향적인 방송시설 구축

선거방송과 같은 대형 프로그램 제작 시 방송시스템을 매년 재구축함으로써 소모된 비효율성을 없애고, 안정적인 방송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방송 시 그래픽을 전담 제작하는 매직센터를 선거방송용 부조정실 인근에 배치하여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다. HDTV, 라디오, 지상파 DMB, poq(폭), IPTV 등 현재 송출되는 방송뿐만 아니라 디지털 라디오, 스마트 미디어, 3DTV, UHDTV 등의 신규 뉴미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방송콘텐츠의 멀티유즈(Multi-use)가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방송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첨단 Effect 조명장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DMX Patch 시설을 신규로 구축하고, Moving Light, HMI(Halogen Metal Iodide) 조명장비, LED 조명장비, 특수효과장비의 사용도 적극 대비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방송조명 제작여건을 마련하였다.

#### ⑤ 포스트프로덕션 일원화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여의도와 일산제작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던 NLE 편집실, 음향 스튜디오, 종합 편집실 등의 Post-Production 시설을 상암으로 전부 일원화함으로써 장비와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그림 24.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인제스트 공간인 미디어스테이션



그림 25. AVID 스토리지

#### ⑥ 자체 개발 기술력 활용

MBC의 방송제작과 송출시스템에 최적화된 자체의 기술력을 최대한 많이 도입함으로써, 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확장성, 호환성, 경제성 등을 도모하였다. eXerver는 기술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비디오서버로써 2008년부터 본사의 제작/송출 전 영역에 적용되고 있었다. 신사옥의 제작부조정실, 뉴스부조정실 등에서 100여 채널 이상의 녹화 및 재생서버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VCR과 테이프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TV송출을 위한 4세대 APC와 라디오의 자동송출시스템인 NEW MIROS(Radio Intergrated Operation System)는 MBC에 적합한 송출시스템으로 안정적으로 사용 중이다. 국내 방송사 유일의 통합 아카이브 시스템인 DAMS(Digital Asset Management System)는 기술연구소가 개발한 미디어자산 관리시스템으로 인제스트, 메타데이터 입력, 자료 검색 및 대출, 콘텐츠 판매 등으로 구성되어 폭넓게 사용 중이다.

다음 12월호에서는 MBC 상암동 신사옥을 가다 2편으로 TV주조, 보도시설, 제작스튜디오 등 주요 방송시설의 특징이 연재됩니다. 

